

7/28(목) 이사야 21-27장 그 날에

24-27장은 <이사야 묵시록>이라 불립니다.

열방에 대한 심판을 넘어(13-21장) 온 세상, 인류 전체,
우주적 영역에 나타날 하나님의 권능이 선포됩니다.

하나님은 온 세상의 지배자이며 주관자이십니다.

<그 날에>, 현실 세계가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/종말이 임할 것입니다.

<그 날에>, 세상 질서를 바로잡고,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것입니다.

<그 날에>, 구원/회복된 이들을 위한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.

(24:1,19-20/ 21-23/ 25:1-5, 26:5-6/ 27:12-13/ 25:6-8)

<그 날>을 바라는 <묵시록>은 보통 현실이 암흑 같은 때,
하나님의 주권과 공의, 심판에 대한 약속과 믿음 없이는
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고통스런 상황에서 쓰입니다.

유다의 화려한 부국강병의 시대에도 짙은 어둠이 있었습니다.

국가(도시)가 성장하면서 합법적인 착취들이 발생했습니다(25:4).

행정/세금/경제정책/도시 집중화 등으로 대토지 소유자들이 생기고,

빈부격차와 갈등,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의가 만연했습니다.

가난한 농민들은 자유민의 지위마저 박탈당할 정도였습니다.

심판은 열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(13-23장).

하나님을 대적한 <모든 이들>이 심판의 대상이므로(25:2-3)

이스라엘 역시 피 흘림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(24:16-20).

<그 날>이 내게 복음일 것이라는 안일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.

혹 내가 멸망의 당사자는 아닌지 냉정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.

이사야 전반부의 방점은 <회복>이 아니라 멸망(죽음)에 있습니다.

완전한 <죽음> 후에야 비로소 무덤이 열릴 것입니다(26:14,19, 27:6-13, 겸37 참고).

이스라엘은 이 모든 과정이 지나도록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(26:20-21).

나는 <모든 과정>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지나고 있습니까?

부활과 회복만 기대합니까, <죽음>의 과정을 겪어내고 있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이사야 21-27장